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5. 6.(금) 08:40
-------	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기획재정부 <총괄>	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	책임자	과 장 이차웅 (044-215-2750)
		담당자	사무관 손정혁 (f15strike@korea.kr)

## 기획재정부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 결과

## 1. 회의 개요

-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.6일(금) 08:00 기획재정부 내 거시경제·금융 관련부서와 국제금융센터가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
- 금일 회의에서는 미국의 5월 FOMC 결과 발표(한국시각 5.5일 새벽)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우리 경제·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

## 2. 주요 논의 내용

- 5.5일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50bp 인상(0.25~0.5% → 0.75~1.00%)하고, 오는 6월부터 보유자산 축소\*를 시작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음
  - \* 月 한도(억불) : (6~8월) 475 (국채 300 + MBS 175) → (9월~) 950 (국채 600 + MBS 350)
-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며, 향후 두번의 회의(Next Two Meetings)에서 50bp 추가 금리인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음
  - 다만, 당초 시장에서 우려했던 75bp 큰 폭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음

- 국제금융시장에서는 FOMC 발표당일에는 파월 의장 발언을 완화적으로 평가하며 위험선호가 확대되었지만, 지난밤에는 미 통화긴축 우려가 재차 부각<sup>1)</sup>되며 전일 상승분을 모두 되돌림<sup>2)</sup>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임

1」 75bp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더라도, 두번의 50bp 추가 금리인상도 충분히 긴축적이라는 해석

2. **미 금융시장 지표** : <5.4일> (다우)+2.9% (나스닥)+3.3% (10년물 국채금리)△4bp (달러인덱스)△0.8%

<5.5일>	△3.1%	△5.0%	+10bp	+0.9%
-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

- 미 연준을 포함, 주요 선진국의 통화긴축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<sup>1)</sup>, 우크라이나 사태,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<sup>2)</sup> 등 다른 불안 요인도 상존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

- 1) (유럽) 3분기에 자산매입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제기  
(캐나다) 4월 50bp 인상하였으며 6월 중 50bp 추가 인상 가능성 제기  
(영국) 5.5일 기준금리 인상(0.75→1.0% +25bp), '09년 2월 이래 13년만에 최고 수준
- 2) IMF '22년 성장전망('22.1월→4월, %): (세계)4.4→3.6, (선진국)3.9→3.3, (신흥국)4.8→3.8

□ 이익원 차관은 최근 글로벌 금융·외환시장의 동조성이 매우 높아졌으며, 이에 따라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불가피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함

- 다만, 현재까지 우리 시장에서의 영향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특히 두드러지는 상황은 아니며,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대외 신인도,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 등이 견조하다는 점을 강조함

① 우리 금융시장의 주요 지표는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<sup>1)</sup>, 주가의 경우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상황임<sup>2)</sup>

- 1) 주가('21.末 대비 5.4일, %): (미 S&P)△10.0 (나스닥)△17.6 (EU)△13.5 (中)△15.2 (日)△6.9 (韓)△10.1  
↳ 日: 5.2일 기준(5.3~5.4일 헌법기념일, 어린이날 등 연휴), 中: 5.5일 기준(4.30일~5.4일 노동절 연휴)  
금리('21.末 대비 5.4일): (미 국채 10y)+142.4bp, (한 국채 10y)+118.4bp  
환율('21.末 대비 5.4일): (달러인덱스)+8.2% (원/달러 환율)+77.5원(+6.5%)
- 2) PER(배, 5.2일): (한국)10.1 (미 S&P)18.8 (유럽)12.5 (중국)10.1 (일본)12.3  
PBR(배, 5.2일): (한국)1.0 (미 S&P)3.9 (유럽)1.69 (중국)1.24 (일본)1.14

② IMF가 세계경제 성장전망을 하향조정하며 우리 경제 성장전망도 하향조정 되었으나, 세계 및 주요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소폭 조정되었고\*,

\* IMF '22년 성장전망 조정폭('22.1월→4월, %p): (세계)△0.8, (선진국)△0.6, (신흥국)△1.0, (한국)△0.5

- IMF 미션단의 기고문\*도 우크라이나-러시아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는 와중에도, 한국은 상대적으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

\* 4.11, KoreaTimes, 'Strong policies help Korea navigate uncertain times' ; Korea's recovery appears relatively resilient even amid rising inflationary pressures.

- 아울러 거리두기 해제 조치 등에 따른 경제심리 회복\* 등은 향후 지표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

\* 소비자심리지수: ('21.11) 107.6 (12) 103.8 ('22.1) 104.4 (2) 103.1 (3) 103.2 (4) 103.8  
기업경기실사지수(제조업 업황BSI): ('21.12) 95 ('22.1) 90 (2) 91 (3) 84 (4) 87

- ③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확대되는 가운데서도, 역대 최고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부충격 대응에 충분한 수준의 외환보유액('22.4월말 4,493억불)은 물론, 견고한 수준의 외채건전성\*을 유지 중

\* 단기외채 비중(기말, 총외채대비, %) : ('19)28.8 ('20)29.2 ('21)26.4 ['15년 이후 최저]

- 이억원 차관은 글로벌 거시경제·금융시장 환경이 빠르게 전환되는 가운데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
- 당분간 우리 금융·외환시장이 각종 대내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우려가 크다고 평가하고, 국내외 경제·금융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
  - 정부는 앞으로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상황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예의주시하는 한편,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·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시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장안정조치를 가동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



기획재정부 <총괄>	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	책임자	과 장 이차웅 (044-215-2750)
		담당자	사무관 손정혁 (f15strike@korea.kr)
기획재정부	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	책임자	과 장 오재우 (044-215-4710)
		담당자	사무관 이용준 (cjeye86@korea.kr)
기획재정부	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	책임자	과 장 심규진 (044-215-4730)
		담당자	사무관 박기학 (gihak@korea.kr)
기획재정부	국고국 국채과	책임자	과 장 장보현 (044-215-5130)
		담당자	사무관 조선희 (whwns56@korea.kr)
국제금융센터	리스크 분석본부	책임자	본부장 정형민 (02-3705-6130)
		담당자	부전문위원 황재철 (jchwang@kcif.or.kr)